

전상운 선생님을 추모하며

이면우†

1985년 가을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과학사학회는 내가 처음으로 참석한 학회였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상운 선생님을 뵈었을 터인데, 사실 기억이 아물 아물하다. 추정컨대 위대한 학자 앞에 선 보잘 것 없는 학생으로서 경외의 마음으로 인사만 올렸을 것이다. 은사 유경로 선생님 덕분에 나는 한국 천문학사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학회에서 전상운 선생님을 여러 번 뵌 수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인 성취가 거의 없던 나는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1988년에 나는 세종 시대의 역법인 칠정산과 관련된 석사 논문을 완성하고 관련된 여러 선생님들께 학위 논문을 증정한 적이 있다. 이 때 전상운 선생님께도 우편으로 논문을 보내드렸고, 잘 받았다는 답장을 받았다. 너무 기쁜 추억이다.

전상운 선생님을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은 1990년 가을 우연히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책이었다. 『과학사(科學史)의 길목에서』(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라는 책이다. 나는 책을 얻으면, 책표지 안쪽에 구입한 날짜를 적어두는데, 이 책을 찾아보니 1990년 10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고뇌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과학사 연구에 엄청난 공력을 들이셨지만, 나에게는 과학사 연구가 멋있게만 보일 뿐이었다. 국제적인 학자로서 멋진 활약을 하시는 선생님의 연구 경력이 부러웠다. 영문판 책

†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춘천교육대학교

을 내시면서 “To my family”라고 헌사를 쓰신 선생님의 고뇌, 이때 선생님의 친구인 시빈(Nathan Sivin)이 손을 잡아주었다는 내용(앞의 책, 32쪽)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식구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황금색 거북선이 그려진 표지가 있는 선생님의 영문판 책[*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Traditional Instruments and Techniques* (The MIT Press, 1974)]을 직접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다. 이 책을 다시 찾아보니 받은 일자가 1998년 3월 21일이었다. 선생님 댁을 방문하여 받은 귀중한 책이다.

전상은 선생님과 인연은 항상 책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춘천교육대학교로 직장을 옮겨 교육대학원에 “과학사와 과학교육”이라는 강좌를 개설하면서 선생님의 『한국과학사』(사이언스북스, 2000)를 필독서로 정했다. 이 책 역시 선생님께서 주신 책이다. 구입한 책도 많지만 선생님께 직접 받은 책도 있어 영광스럽다. 날짜를 보니 2000년 10월 5일이었다.

작년 3월에 전북대에서 열린 한일과학사세미나에서 역시 선생님을 지근거리에서 뵈었다. 거동이 불편하시어 많이 안타까웠다. 선생님의 최신 역작이며 중요한 기록인 『우리 과학 문화재의 한길에 서서: 전상운의 한국 과학 기술사 회고』(사이언스북스, 2016)에 직접 서명을 하여 주셨다. 내가 이 책을 받은 것은 2017년 3월 24일의 일인데, 이것이 선생님을 뵈는 마지막 장면이다.

운이 좋게 나는 선생님과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다. 1992년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선생님께서 확보하셨고, 공동연구원으로 나와 박명순 선생을 지정하셨다. 연구 주제는 “북한의 과학기술사 연구 현황”이었다. 1992년 10월 일본 문부성 초청 장학금을 받아 쓰쿠바 대학 교육연구과로 18개월 단기 연수를 떠나면서, 일본에서도 이 연구를 계속 수행했다. 쓰쿠바 대학 도서관에는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전사』를 비롯하여 『역사과학』과 같은 다양한 북한 발행 학술 논문집을 볼 수 있었다. 1993년 6월까지 초고를 완성하여 선생님께 보내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아울러, 수정 보완을 직접 하시어 최종 보고서를 냈다.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는다.

2008년 국제 동아시아과학사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 ICHSEA)가 미국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렸다. 이때 학회에서는 특별히 “동아시아 과학사를 개척한 선구자들 님, 야부우치, 호평육, 시빈, 전상운 등을 기리는 세션”을 마련했다. 우연히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는 급하게 논문 발표를 하겠다고 덤벼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전상운 선생님을 기리는 학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 발표 논문의 제목은 “Studies on the ‘Chonsang-yeolcha-bunya-jido 天象列次分野之圖’ since Jeon Sang-woon(全相運)’s Research” 였다. 주된 내용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전상운 선생님의 연구를 소개하고 이후 한국 학계에서 벌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논쟁을 소개한 것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젊은 학자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 여러 번 외국 학회를 동행했었는데 이때마다 젊은 학자들이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아울러 한국 과학사에 대한 영문 학회지가 나오기를 고대하셨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셨다. 그러한 기대를 한국과학사학회가 실천하고 있으니 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다.

선생님의 일본어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1991년 10월에 교토에서 열린 제4회 한일과학사세미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의 특강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알찬 내용과 함께 일본인다운 일어 구사가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다.

선생님께서서는 강의를 잘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하다. 대중 강연도 아주 뛰어나셨다. 특히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한국 과학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셨다.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장면은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성덕대왕 신종을 옮겼을 때의 일이다. 이때 종을 거는 고리를 포항제철에서 현대 기술로 만들었지만 그 고리가 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휘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지름 8cm가 되는 고리를 찾아 다시 걸었더니 아직까지도 종이 건재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 우리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선생님의 설명이었다.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신동원 교수가 정리한 선생님과과의 대담을 보면 될 것이다. 『우리 과학 문화재의 한길에 서서』 (사이언스북스, 2016) 말미에 무려 140여 쪽에 해당하는 생생한 기록이 있다. 한국 과학사 연구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과 노고를 우리는 이제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아쉬운 일이다.

2018년 4월 21일 과학의 날에 우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전상운 선생님 추모 세션의 모임을 가졌다. 우리 학회의 원로이신 송상용, 박성래, 김영식, 남문현, 황상의 선생의 추모사와 추억들, 이어 제자인 조정미 교수의 추모담, 전상운 선생님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첨가한 소장학자 신동원, 임

종태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참석자 모두 가슴이 숙연해지는 행사였다.

그동안 나는 전상운 선생님과 비교적 긴 세월을 같이 했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내가 게을렀던 탓이다. 지금도 전상운 선생님을 떠올리면, 고매한 인격을 갖추신 은발의 신사, 영어, 일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국제적인 과학사 학자로 기억된다. 어린 후배들에게 항상 겸손하셨고, 만나 뵈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다른 세상에서 편하게 보내셔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후배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늘에서도 한국 과학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시는 선생님께, 삼가 명복을 빌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